

일본에서의 나의 고향 < 와카야마 >

교육학부 10113001 이진희

나는 올해 4월에 와카야마에 도착했다. 그 후 , 벌써 3개월이 흘렀다. 그 동안 오랜 시간은 아니지만, 나는 이것저것 많을 것을 느꼈다. 우선, 와카야마에 애착이 생기기 시작했다. 마치, 일본에서 나의 고향 같은 친근한 느낌이였다. 환경도 깨끗하고, 사람들도 친절해서 정말 살기 좋은 곳이라고 생각했다. 특히, 와카야마는 다른 지역과 비교하면, 와카야마만의 특색이 잘 나타나 있는 것 같다. 특산물인 굴, 우메보시 뿐만 아니라 와카야마의 자연환경도 잘 보존해서 관광지로 활용하는 것이 인상적 이였다. 산과 바다가 있고, 시내 중심에는 성도 있어, 현대와 과거의 역사가 공존하는 모습이 정말 멋있었다. 대구에서는 좀처럼 강이랑 바다는 볼 수 있는 기회가 없었다. 그래서 와카야마에 와서 매일 바다를 볼 수 있게 되어 정말 좋았다. 언제나 휴양지에 온 듯한 기분이다. 많은 사람들이 교환유학생으로 와서 회관에 살다가 대학원생이 되어 다시 와카야마에 돌아오는 이유를 조금은 알 것 같았다. 나도 벌써 한국에 돌아가고 싶지 않을 만큼 즐거운 생활을 하고 있다. 다음은, 와카야마 시민들의 자기 지역에 관한 끈끈한 자긍심을 엿 볼 수 있었다. 이 점에 대해서는 본 받을 가치가 있다고 생각한다. 솔직히 말하면, 나는 일본에 오기 전에 대구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에 대해서도 그다지 관심이 없었다. 당연히 나는 한국 사람이고 한국에 살고 있으니깐 생각해 볼 기회 조

차 없었던 것 같다. 반대로, 일본에 와서 우리나라에 대해 소개할 기회가 생겨, 그 이후로 곰곰이 조국에 대해 생각해 보는 계기가 된 것 같다. 일본에 와서 비로서 나의 정체성이 갖춰진 것 같다. 처음에 한국에 관해 물어봤을 때, 나는 머뭇머뭇 대답을 제대로 할 수 없었다. 정말 창피한 일이 아닐 수 없었다. 늦었지만, 지금부터라도 착실히 공부해야겠다고 마음 먹었다. 반면, 와카야마 시민들은 자신들의 고장에 대해 관심을 갖고, 아끼는 마음을 느낄 수 있었다. 마지막으로, 일본인에 대해 나의 인식이 바뀌었다. 모두 친절하게 대해주고 언제나 활기찬 모습이 보기 좋았다. 와카야마에 살고 있는 사람들을 보면, 특별한 근심걱정 없이, 여유로운 생활을 즐기고 있는 것 같았다. 그런 사람들은 보면 나까지 행복해지는 것 같았다. 그렇지만, 좀 더 살기 좋은 곳이 되기 위해서는 교통을 재 정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와카야마의 중심가는 잘 정비되어 있지만, 조금만 벗어나면 금방 좁은 길이 나와 불편함을 느낄 수 있다. 특히, 와카야마는 고령자가 많이 살고 있으므로, 그들을 위해서라도 도로나 교통 표지판 등을 새로 만들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버스의 수도 늘리고 가격도 내려 많은 사람들이 편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교통문제에 대해서 좀 더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이다. 교통이 편리해지면, 틀림없이 환경도 좋아 질 것이다. 또한, 와카야마가 교통중심지가 되어, 예전의 번영했던 와카야마가 될 것 이라고 생각한다. 앞으로 약 8개월간 어떤 일이 벌어질지 기대된다. 와카야마야! 나의 여름방학과 겨울 잘 부탁해!!